

2023 동네기록관

2020

① 금천동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문화공간 정스다방
주소 | 상당구 수영로207번길 8-16

② 문의면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복합문화공간 1377
주소 |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2길 20-12

③ 산남동 동네기록관 휴식기

운영 | 산남권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소 | 서원구 두꺼비로 93, 권덤아파트 관리동

④ 내덕동 동네기록관 휴식기

운영 | 예술실행공동체 Bees
주소 | 청원구 내덕동 367-4

⑤ 운천동 동네기록관 자생적 운영

운영 | 유자차스튜디오
주소 | 흥덕구 흥덕로149번길 22

⑥ 용암동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초롱이네도서관
주소 | 상당구 용암북로4번길 38

⑦ 영운동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문화재생공동체 터무니
주소 | 상당구 영운천로55번길 47

⑧ 우암동 동네기록관 휴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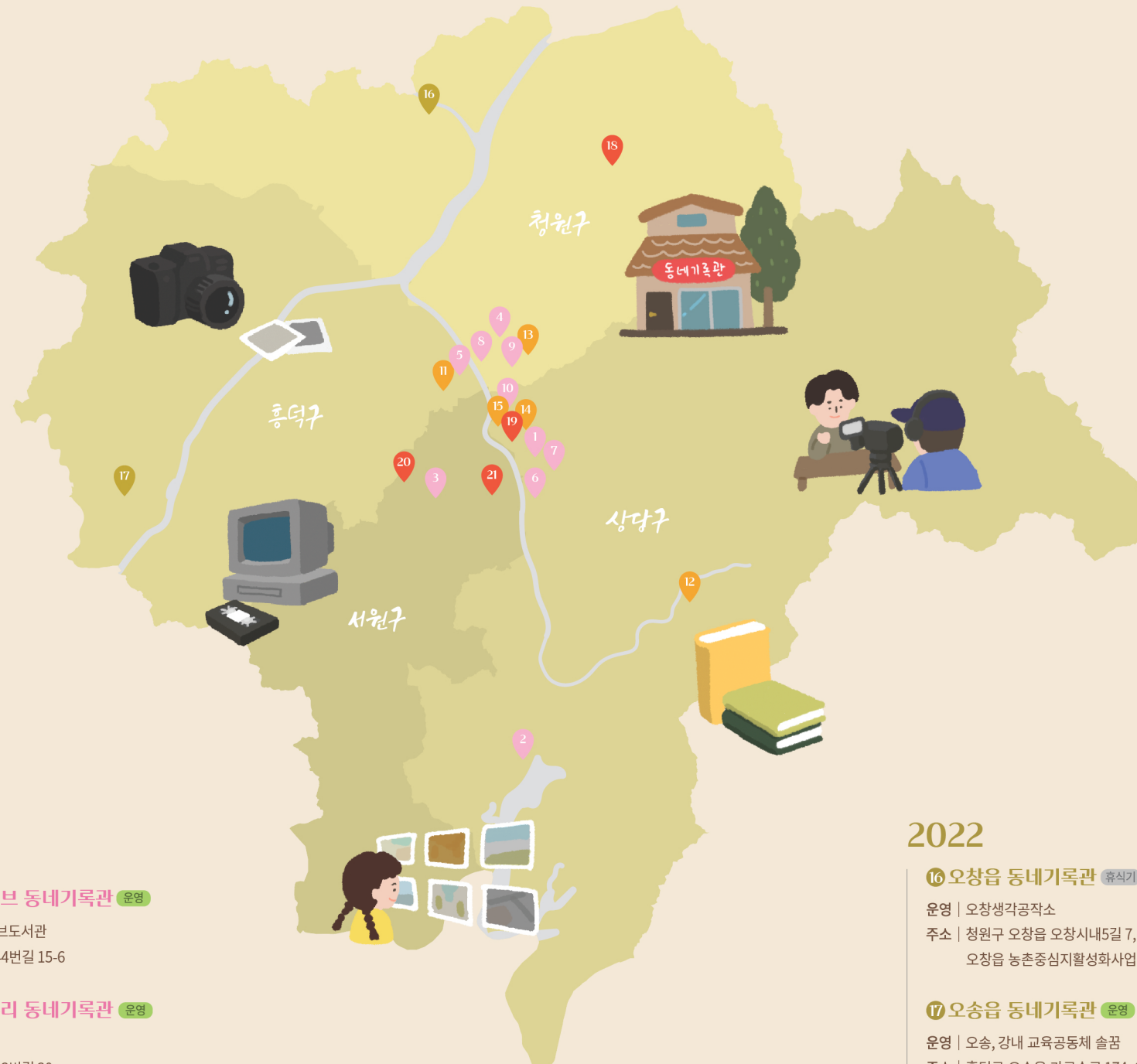
운영 | 온몸 주식회사
주소 | 청원구 무심동로 576

⑨ 우암동 콜렉티브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청주사진아카이브도서관
주소 |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15-6

⑩ 중앙동 너나우리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너나우리도서관
주소 | 상당구 상당로143번길 30



2021

⑪ 운천동 뜰구름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비철철문화예술협동조합
주소 | 흥덕구 흥덕로 127, 1층

⑫ 가덕면 꽃천지가덕 동네기록관 휴식기

운영 | 꽃천지가덕공동체
주소 | 상당구 가덕면 가덕시동길 74-4

⑬ 내덕동 안덕별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주)두리재준건축사사무소
주소 | 청원구 덕별로23번길 9

⑭ 성안동 밑그림 동네기록관 휴식기

운영 | 우주개구리
주소 | 상당구 상당로 67, 3층

⑮ 중앙동 친환경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키피
주소 | 상당구 상당로131번길 7-7

2023

⑯ 내수읍 동네기록관 신규

운영 | 내수꿈터(내수읍 모해센터)
주소 |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52

⑰ 성안·남주동 동네기록관 신규

운영 | 지역문화재생 사회적협동조합(청주시웨딩허브센터)
주소 | 상당구 무심동로336번길 105

⑱ 성화동 동네기록관 신규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성화꿈터작은도서관)
주소 | 서원구 장전로 11

⑲ 수곡1동 동네기록관 신규

운영 | 수곡1동 마을기록관(수곡1동행복문화센터)
주소 | 서원구 수곡동 75-4

2022

⑳ 오창읍 동네기록관 휴식기

운영 | 오창생각공작소
주소 | 청원구 오창읍 오창시내5길 7, 2층
오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

㉑ 오송읍 동네기록관 운영

운영 | 오송, 강내 교육공동체 슬픔
주소 |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74, 오송읍 복지회관 3층

문화도시란?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씨앗,
청주의 가치를 꽃피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사업입니다.

청주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12월 제1차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어
2020년도부터 '기록문화 창의도시'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 기록유산 보전, 기록활동 활성화,
창의가치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동네기록관이란?

마을의 기록과 주민의
기억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기록문화 복합 공간

2020년 공모를 통해 기존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해 온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10곳을
동네기록관으로 선정하였고, 이듬해 5곳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민(운영 공동체)과
관(공간)이 협력하는 민·관협력모델을 도입하여
준비단계 2곳을 발굴하였고, 2023년 민·관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4곳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청주 4개구 곳곳에 자리한 동네기록관은 주민들이
기록 활동의 주체가 되어 동네만의 이야기, 일상의
역사, 함께하는 이웃들의 삶의 발자취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수집하고 기록해나가는 문화도시
청주만의 고유한 일상 기록 저장소입니다.

★ 2023 동네기록관 운영 핵심 포인트! ★

공공 소유(시 또는 타부처와 연계된 공간 등 활용)의
기존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공동체를 결합시켜
'동네기록활동'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신규 모델
형태의 확대로 기존 공간의 한계로 작용했던
지속가능성을 확대 도모했습니다.

